

청년기 진로발달 변화궤적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 이원 성장 혼합 모형(Two-part growth mixture model)을 적용하여

이수용¹⁾ · 이은수²⁾

요약

청년기에 가장 핵심적인 고민 주제는 '진로'이다. 이 시기 진로를 결정하고 진로에 대한 정보를 얻으며, 진로를 향해 나아간다. 또한 진로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전생애에 걸쳐 변화하는 것으로, 진로발달과 성취가 과업으로 주어지는 청년층에 대한 전반적인 진로 발달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교육고용패널조사』를 활용하여 청년들의 진로 발달 추이와 변화 형태를 유형화하고, 이들 형태가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검증했다. 진로 발달을 구성하는 진로 결정과 정보인지수준을 동시에 유형화하기 위해 이원 성장혼합모형(Two-part growth mixture)을 실시했으며, 각 유형이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Lanza 방식으로 분석했다. 연구결과, 진로 결정이 청년기 전반에 걸쳐 미결정 수준에 해당하는 미결정 집단을 포함하여 5개의 유형이 나타났다. 또한 각 유형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는 진로발달이 높은 집단이 전반적으로 다른 집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는 이러한 결과에 대한 더 상세한 설명과 함의를 포함하고 있다.

주제어: 진로 발달, 노동시장 성과, 잠재계층, 이원 성장 혼합 모형

I. 서론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취업 문턱에 있는 청년들은 일명 '스펙'이라 불리는, 취업에 필요한 자격 요건을 달성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좁은 취업문을 돌파하려는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무분별하게 스펙을 쌓는다. 하지만 진로에 대한 고민 없이 쌓인 '스펙'은 취업에 있어서 들러리에 불과할 뿐 스펙 자체가 취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채창균, 권태기, 2012; 노경란 외, 2011; 박동열, 김대영, 2006). 즉, 자신이 업으로 삼을 직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스펙이 만연한 상황이기 때문에 청년들의 취업난은 취업 실패 후 다시 부족한 스펙을 쌓고, 다시 취업 전선에 재진입하는 악순환을 겪게 된다. 하지만 스펙을 강조하는 사회 풍토가 현실이라 할지라도 스펙이 아닌 확고한 진로 의식을 통해 자신의 고유성을 구축하는 것이 더 건설적이다.

1)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pagass103@naver.com).

2) 고려대학교 교육학과 석사과정(eunsoo9090@gmail.com).

최근 정부에서도 진로 의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6월 초·중·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의 진로교육 지원 방안들로 구성된 진로교육법을 공표하였다. 그전까지는 중·고등학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면 이번에 새롭게 제정된 진로교육법에는 대학의 진로교육에 대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는 직업에 대한 고민과 결정이 어느 한 시점에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전생애에 걸쳐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Super, 1990, 김봉환, 김계현, 1997). 특히 대학생 시기는 진로결정을 구체화하고 계획을 세우면서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인 만큼 다양한 진로교육을 제공하는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진로발달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진로발달은 특정 한 시점, 예를 들면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4학년 등, 진로를 주로 정하는 시점에서의 진로 선택이 취업 여부, 연봉, 직장 만족과 같은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보이는데 대해 초점을 맞추고 있다(박소영, 민병철, 2008;곽수란, 이기종, 2014; 김성남, 2013). 즉, 진로에 대한 고민이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뤄지며, 발전, 변화하는 측면을 적절하게 다루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청년기 전반에 걸친 진로 발달 변화가 어떠한지 파악하고 그 정도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진로발달이란 진로 결정성과 진로정보인지수준으로 요약될 수 있다. 진로 결정성은 매 순간 진로에 대한 확고한 의식을 갖는 것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이다. 진로정보인지는 진로 결정성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요소(김충기, 1996)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진로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개념이다. 진로 결정성이 생애단계에 따라 변하듯, 진로정보인지 또한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김봉환 외, 1997). 진로 결정성과 정보인지는 진로에 영향을 미치며 노동시장 성과에도 영향을 미친다(곽수란, 이기종, 2014). 즉, 직업 결정성이 높은 아이들은 해당 직업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탐색하고 고민하는 과정을 거치며 이를 토대로 성숙한 직업관을 갖고 더 나은 노동시장 성과를 보이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로발달이 전생애에 걸쳐, 특히 직업을 갖고 정착하는 단계인 20대 전반에 걸쳐 다양한 변화 형태로 나타나고, 이들 형태에 따라 노동시장 성과가 직접적으로 차이가 날 것이라 가정한다. 즉 진로 발달 수준이 20대 전반에 걸쳐 높은 청년들은 노동 시장 결과물에 있어 다른 집단, 특히 진로 결정 상태가 미결정으로 남아있는 집단보다 높을 것이다. 진로 미결정 집단의 경우 진로에 대해 만성적으로 미결정한 집단과, 성격이나 기타 다른 요인에 의해 특정 시점에서 미결정인 집단으로 나눌 수 있는데(김봉환, 김계현, 1995; 이재창 외, 2007), 이 경우 매 순간 진로 결정에 대해 순수한 미결정 집단을 진로 결정 변화 패턴 분석을 통해 도출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20대 청년들의 진로 결정성과 진로정보인지수준을 중심으로 진로발달의 변화 추이와 노동시장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에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 청년기의 진로 결정 여부에 대한 변화 형태가 어떠한가? 둘째, 진로 결정성 변화 형태에 따른 진로정보인지 변화는 어떠한가? 셋째, 청년기 진로 발달 변화 형태에 따른 노동시장 성과는 어떠한 차이가 나는가?

II. 이론적 배경

1. 진로발달의 개념 및 중요성

진로발달이란 평생에 걸쳐 이루어지는 발달과업이자 자신과 사회와의 적극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미래역할을 탐색, 계획, 결정, 수정을 반복하면서 진로에 관한 의식과 자기를 성장시켜 나가는 과정이다(Super, 1957; Usinger & Smith, 2010; 이자형, 2015). Ginzberg et al.(1951)은 진로에 대한 고정적이고 일회적인 관점을 비판하면서 진로에 대한 발달적 관점을 제안하고, 구체적으로 환상기(초등학교 시기), 잠정기(청소년기, 중학교 시기), 현실기(청년기, 고등학교 이후 시기)로 구분하였다(곽수란, 이기중, 2014에서 재인용). 진로발달 이론에 따르면, 대학생 시기는 현실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잠정적으로 결정했던 진로를 구체적으로 탐색하고, 진로결정을 구체화하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게 된다.

이러한 진로발달은 진로결정수준, 진로탐색, 진로준비행동, 진로효능감 등과 같은 하위요인을 통해 설명되고 있다(김성남, 2013; 노법래, 2013; 황매향, 2010; 황여정, 2007). 그 중에서도 진로결정과 진로정보인식수준은 진로지도 및 진로상담과 관련된 연구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주제로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Osipow, Carney,& Barak, 1976). 진로결정이란 진로지도의 마지막 결과로 나타나는 것으로, 자신에 대한 이해, 직업세계에 대한 정보 그리고 자신의 직업가치관 등을 토대로 최종적으로 진로를 선택하는 의사결정을 일컫는다(황여정, 2007). 미래에 대한 진로 결정여부는 향후 노동시장으로의 이행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진로정보인지는 진로발달에 있어서 개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수집하여 진로결정이 보다 합리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해준다(Norris, et al, 1985). 따라서 진로결정여부 및 진로정보인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은 대학생들의 진로발달과정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또한 진로발달 이론에 의하면 진로결정이나 인식 등의 성숙은 어느 한 시점에 결정되기보다 개인의 생애단계에 따라 발달하게 된다. 진로발달 연구는 한 시점에서 진로결정 여부를 구분하여 이로 인한 결과를 분석하는 것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김봉환, 김계현, 1997; 장경문, 2005; 임은미 외, 2009). 이에 반해 진로발달을 종단적으로 걸쳐서 본 선행연구로는 권재기, 김진호(2011)의 연구가 있다. 하지만 진로발달을 20대 초반으로 국한한 점과, 순수한 진로 미결정 상태인 집단을 도출하지 못한 한계점이 남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 초반을 넘어 청년기 전반에 걸친 진로결정 및 진로정보인지를 변화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려고 한다.

2. 진로발달과 노동시장 성과

진로결정은 현재 이후에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방향설정을 의미하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졸업 후에 자신이 종사할 구체적인 직업분야의 선택을 의미한다(김봉환, 김계현, 1997). 진로결정에 관한 연구는 주로 청소년기의 학업성취, 학교적응과 관련해서, 그리고 진로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을 밝히는 연구로 진행되어 왔다(이자형, 2015; 장경문, 2005; 박수길, 이영희, 2002). 반면, 진로결정 혹은 진로정보 인식수준이 개인의 직업세계에서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편이다. 이는 학교와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각각 진행되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학교에서 직업세계 이후의 삶을 아우르는 종단적 데이터가 부족하기도 했기 때문이다(박소영, 민병철, 2008).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교육고용패널이나 고용패널과 같은 자료가 활성화되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진로결정과 같은 진로발달 특성이 취업여부, 임금, 직무만족도 등의 노동시장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곽수란, 이기종, 2014; 김성남, 2013; 노경란 외, 2011; 박재민 외, 2010). 먼저, 대졸자 직업이동 경로조사(GOMS) 자료를 사용하여 일반계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분석한 박소영, 민병철(2008)의 연구에서는, 진로결정시기에 따른 노동시장의 성과를 분석하였다. 노동시장 성과로는 임금과 직업만족도를 지표로 설정하고, 진로결정수준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진로결정시기가 빠른 집단에서의 임금 및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체적 진로결정수준의 시기를 당기고 이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것을 뒷받침해준다.

그 다음으로 특성화고졸 취업자의 진로발달을 이차원적으로 유형화하고, 이러한 진로발달 유형과 직장만족도의 관계를 분석한 김성남(2013)의 연구가 존재한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진로에 대해 뚜렷한 목표를 갖고 실제적인 준비행동이 높은 유형의 학생들이 가장 직장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교 재학 시 취업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진로와 관련된 다양한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는 것이 졸업 후 취업한 직장에 대한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국교육고용패널(KEEP) 고등학교 3학년 패널 1~9차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한 곽수란, 이기종(2014)의 연구에서는 고등학생의 진로발달 특성과 직업만족도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진로발달 특성인 고교학업, 자아정체감, 전공일치 요인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등학교 시절 진로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대학에 입학한 학생들은 미성숙한 진로발달을 보이게 된다. 대학생의 직업의식 실태를 조사한 연구(박동열·김대영, 2006)에 따르면 지방대학의 학생은 진로 문제를 가장 고민되는 사항으로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응답자의 82.4%가 구체적인 진로를 결정하지 못하였고, 진로정보 또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재기, 김진호, 2011에서 재인용.) 이런 현상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대학졸업 이후에도 마땅한 직장을 찾지 못하고 이직을 반복하거나 실업 상태를 지속하는 등 방황하게 된다. 또한 학생들이 부족한 정보와 확신, 그리고 내적 동기가 결여된 상태로 진로를 결정하게 되면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안정

적 일자리를 가지게 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등의 부적응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신희경 · 김우영,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대의 진로발달 양상을 확인하고, 노동시장 성과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진로발달 변화와 변화유형이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검증하기 위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의 한국교육고용패널(Korean Education & Employment Panel: KEEP)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 2~11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 KEEP 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교육경험과 진학, 진로, 직업세계로의 이행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2004년에 시작되어, 이후 동일한 표본을 1년 주기로 추적 조사한 패널이다. 분석대상은 2005년도에 대학에 입학한 2,456명 가운데, 남학생의 경우 군복무로 인해 분석이 적절치 않아 제외하고, 여학생 1,051명으로 최종 표본을 구성하였다.

2. 측정도구

1) 진로발달특성

‘미래직업 결정 여부’의 경우, 미래의 직업을 결정했다고 응답하면 1, 결정하지 못했다고 답하면 0으로 코딩하였다. 분석에는 대학교에 입학한 2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의 시점을 모두 사용하였다.

‘진로정보인지수준’은 미래직업에 대해 얼마나 파악하고 있는가를 측정하는 문항 2개(업무내용, 전망 및 보수)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1-전혀모른다’, ‘2-잘 모른다’, ‘3-약간 안다’, ‘4-잘 안다’ ‘5-매우 잘 안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미래직업 결정 여부에서 ‘예’라고 답한 경우만 본 문항에 응답했기 때문에, ‘아니오’라고 답한 경우 진로정보인지수준 해당 값은 전혀 없다고 판단하여 ‘0’으로 처리되었다. 두 문항을 합산하여 평균 낸 점수를 활용하였고, 마찬가지로 2차년도부터 10차년도까지의 데이터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2) 노동시장 성과

결과변인으로는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 정규직여부, 직업만족도의 설문문항을 활용하였다. 월평균 임금은 연속변수(단위: 만원)로 측정하였고, 정규직여부는 이분형 변수로 정규직일

경우 1로, 비정규직일 경우 0으로 코딩하였다. 직업만족도는 크게 근무조건(노동환경, 임금), 동료관계(직장 내 대인관계), 복지수준(안정성, 복지후생, 발전가능성)으로 나누어진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전반적인 만족도와 근무환경·임금·안정성에 대한 만족도 점수를 활용하였다. 각 항목은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4-그렇다' '5-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결과적인 노동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가장 마지막 시점인 11차 자료를 일차적으로 사용하였고, 11차 자료에 없는 경우에는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갖게 되는 시점인 4차 년도부터 차례대로 병합하였다.

〈표 1〉 변수들의 문항 내용

| | 변수 | 내용 | 척도 | 비고 |
|------------|------------|----------------|-----------------------------------|---|
| | 미래직업 결정 여부 | . | 예=1, 아니오=0 | . |
| 진로발달 | 진로정보인지 | 업무내용 (하는 일) | 1: 전혀 모른다 2: 잘 모른다 3: 약간 안다 | . |
| | | 전망 및 보수 | 4: 잘 안다 5: 매우 잘 안다 | |
| 노동시장 성과 | 월평균 임금 | . | 만원단위 | - 학교를 졸업하고 직업을 갖게 되는 시점인 4-11차 자료를 병합 - 11차 자료를 일차적으로 사용하였으며, 11차 자료에 없는 경우 순차적으로 병합 |
| | 근무형태 | . | 정규직=1 비정규직=0 | |
| | 직장만족도_근무조건 | 노동환경, 임금 | 1-전혀 그렇지 않다 2-그렇지 않다 3-보통이다 | |
| | 직장만족도_복지수준 | 안정성 | 4-그렇다 5-매우 그렇다 | |

3. 분석방법

본 연구는 20대 전반에 걸쳐 진로 결정성의 변화와 다양한 변화 패턴을 확인하기 위하여 혼합 모형(Mixture Model)을 적용하였다. 특히 진로 결정성 여부와 함께, 미래 직업을 결정한 경우 진로정보를 얼마나 탐색하는 지 여부도 함께 보기 위해 일반 성장 혼합 모형을 확장하여 이원 성장 혼합 모형(Two-part growth mixture model)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중점적인 변인인 진로 결정성은 '미결정'인 '0'이 많고, 진로정보 인식 수준은 '진로 미결정'인 상태일 때, '0'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분포가 왼쪽으로 치우쳐진 정적 편포 자료가 된다. 이 경우에 Olsen과 Schafer(2001)가 제시한 이원 잠재성장 모형(Two-part latent growth model)을 사용할 수 있는데, Part 1에는 0과 1로 코딩된 이분형 변수를 포함하여, 빈도에 관한 정도를 뜻하며(Muthen, 2001; Kim, Muthen, 2009), Part 2에는 Part 1에서 1로 응답한 경우에 그 정도를 나타내는 연속형 변수를 포함한다. 즉 이분형 변수를 포함하는 성장모형과 연속형 변수를 포함하는 성장모형의 결합이 이원 잠재성장모형이다. 이원 잠재성장 모형은 단

순히 특정 사건 여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동시에, 그 사건의 정도의 변화까지 한 번에 평가할 수 있다(Brown et al., 2005; Witkiewitz et al., 2007).

여기에 더해 본 연구에서는 Olsen과 Schafer의 이원 잠재성장 모형을 성장 혼합모형으로 확장하여 분석했다(Muthen, 2001). 성장 혼합모형은 다양한 모집단을 가정하여, 한 표본 안에서 여러 개의 변화 양상을 찾아내는 방법이다(McLachlan, Peel, 2004; Muthen, 2004; Muthen, 2008). 즉, 이원 잠재성장 모형을 활용하여 Part 1의 사건 여부의 변화에 대한 패턴과 Part 2에서 Part 1에서 탐색된 패턴 안에서 진로정보인지의 변화 패턴도 함께 찾을 수 있다.

이원 성장 혼합 모형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각 시점에서의 이분형 변수로 잠재계층 분석(Latent Class Analysis)을 실시하여 이분형 변수의 전반적인 변화 형태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혼합 모형에 적용할 집단 수를 정하고, 최적의 계층 수를 찾은 후에 계층을 하나 추가하여, 마지막 계층이 모든 이분형 변수에 대해 '1'이 나올 값을 0으로 제약하여 모든 시점에서 0만을 응답하는 계층, 즉 진로 결정성이 없는 계층을 도출한다. 이를 구조적인 0(Structural zeros) 집단으로 부르며(Muthen, 2001), 구조적 0집단은 우연히 0으로 응답하는 집단이기보다 실질적으로 0의 응답만을 하는 집단을 뜻한다(Carlin et al., 2001).

다음으로 잠재계층에서 도출된 집단 수와 구조적 0집단을 잠재 계층 성장 모형(Latent Class Growth Model)으로 모형화 한다. 잠재 계층 성장 모형은 각 집단 간의 분산이 동일하다는 가정을 하고, 집단 간 평균을 추정한 성장 혼합 모형 중의 하나이다(Muthen, 2008; Sterba, 2013). 그 이후 연속형 변수를 해당 모형에 포함하여, 이원 성장 혼합 모형 분석을 실시한다. 마지막으로 이원 성장 혼합 모형에 계층을 설명하는 설명변수를 넣거나, 도출된 계층을 독립변수로 하여 다른 결과변수(distal variables)를 설명하도록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을 실시할 수 있다.

집단 수를 선택하기 위해 이원 성장 혼합 모형에서도 일반 혼합 모형과 마찬가지로 베이저안정보 지수(Bayesian Information Criteria: BIC)를 기준으로 Lo, Mendel과 Rubin(2001)이 제안한 LMR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 LRT), McLachlan과 Peel(2000)이 제안한 Bootstrap 우도비 검정(Likelihood ratio test)를 함께 고려했으며, 해석 가능성에도 중점을 두고 집단 수를 파악했다. BIC는 값이 작을수록 좋은 적합도를 나타내며 LMR LRT의 경우 k-1개의 집단과 k개의 집단의 우도 값을 비교하여 χ^2 검정을 하여 집단 수의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다(Muthen, 2004). BLRT는 LMR LRT 검정과 마찬가지로 k-1개의 집단과 k개의 집단의 차이 검증이다. BIC와 BLRT는 집단 수를 도출하는 데 강한 수행을 보이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Nylund, Asparouhov, and Muthen, 20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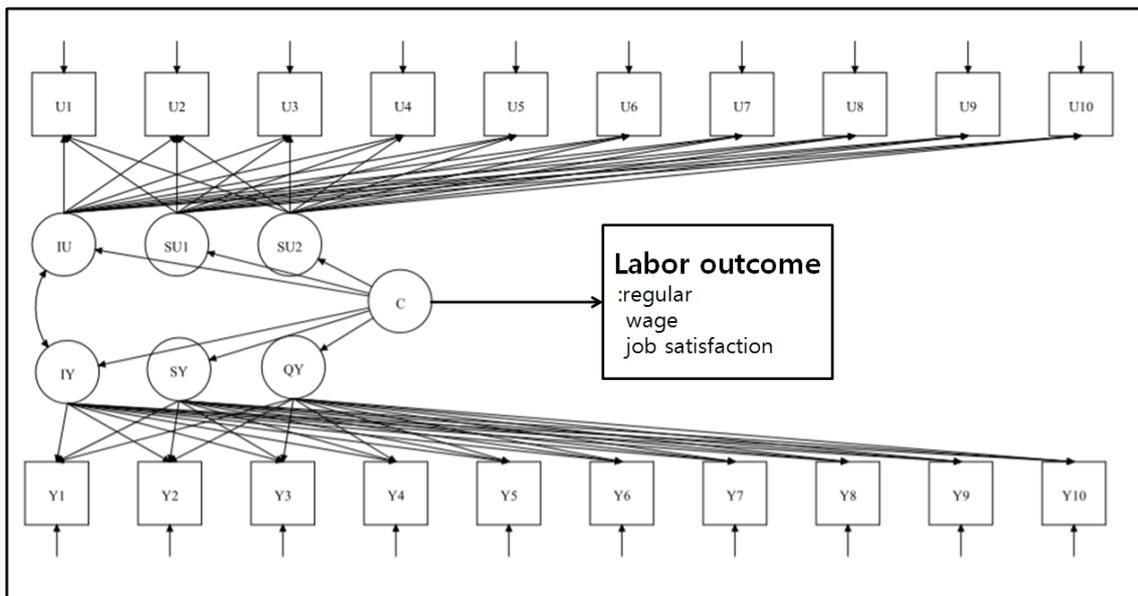
그런데 성장혼합모형에서 집단이 결과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바는 독립변수인 잠재계층 변수가 알려지지 않은 분포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분석에 많은 문제를 가지게 된다. 이를 Lanza가 제시한 모형 기반 분석(Flexible model-based approach; Lanza et al., 2013)을 통해 검증했다. Lanza 방식은 혼합 모형에 결과변수를 넣는 Vermunt가 제안한 3 단계 접근법(Vermunt, 2010)보다 집단 멤버십 간의 큰 차이를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강점이 있다(Muthen, 2014). 또한 연

속형 결과변수와 범주형 결과변수에 모두 사용 가능하다는 장점 또한 있다. Lanza 방식은 결과변수만 확인가능하다는 점에 약점이 있지만, 3 단계 접근법과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본 연구의 모형을 Mplus 7을 활용하여 분석했다. 아울러, 20대 전체에 대한 10년 치 종단자료이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 이탈로 인한 결측값이 다수 발생했는데, 이를 처리하기 위해 완전정보 최대우도법(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을 이용하였다. 완전정보 최대우도법은 모형의 공분산 행렬을 이용하여 분석하는 대신, 개별 관측치의 공분산 행렬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현재 가지고 있는 정보를 모두 활용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위 방식은 전통적인 결측치 처리 방법인, 무조건 제거 방식(listwise)나, 결측값을 주변 변수를 이용하여 예측하여 넣는 확률회귀대체법이나 EM(Expectation-Maximization) 방식보다 더 신뢰로운 통계치를 제시한다 (Arbuckle, 1996).

4. 분석모형

진로 결정력과 정보인지 수준의 청년기 변화 패턴을 확인하기 위한 본 분석에서 사용한 이원 성장 혼합 모형은 [그림 1]과 같다. U1-U10으로 코딩된 이분형 변수는 20부터 29세까지 각 시점에서의 직업 결정 여부를 뜻하며, Y1-Y10으로 코딩된 연속형 변수는 20~29세의 각 시점에서의 직업 정보 인지 수준을 뜻한다.



[그림 1] 진로발달 특성의 이원 성장 혼합 모형과 노동시장 성과

IV. 연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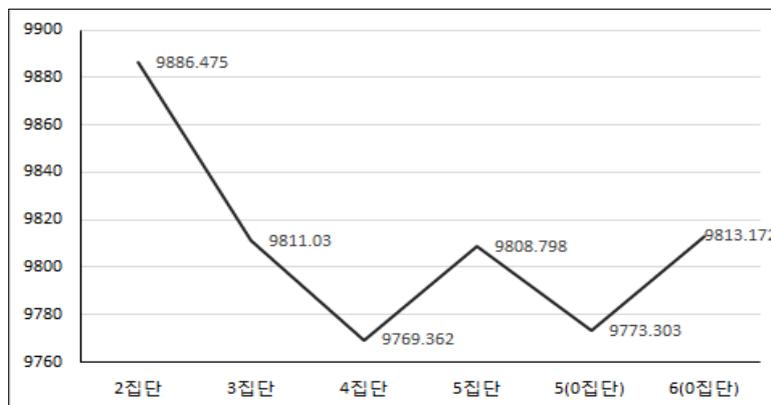
1. 진로 결정성 변화 형태의 잠재계층 수 결정

본 연구에서는 10년 간 전반적인 진로 결정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잠재계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2개의 잠재계층에서 분석을 시작하여, 집단 수를 하나씩 증가시키면서 얻어진 BIC를 기본으로, LMR LRT, Bootstrap LRT를 함께 고려하여 최적의 잠재계층 수를 결정했다. 분석에서 얻어진 집단별 값은 아래 <표 2>에 제시되어 있다.

분석결과, BIC 지수가 집단 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소하다, 4집단에서 5집단으로 바뀔 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LRT는 4집단과 5집단은 구분 가능하게 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LMR LRT의 경우 4집단과 5집단이 동일하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진로 결정성의 종단적인 변화에는 4개의 상이한 형태가 있다고 판단하고, 계속해서 모든 시점에서 진로결정성이 0인 집단(구조적 0집단)을 분석 모형에 포함하여 4집단 BIC 지수와 비교했다. BIC 지수가 미세하게 높아졌지만($\Delta BIC = 4$), LMR LRT와 BLRT의 결과가 4 집단과 구조적 0집단을 포함한 5집단이 구분가능하다는 결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4집단에 구조적 0집단을 포함한 5집단 모형을 진로결정성의 종단적인 변화 형태라고 판단했다. 추가적으로 구조적 0집단을 포함한 6집단 모형도 분석하였지만, 5집단 모형에 비해 더 나은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 5집단 모형의 경우, Entropy 지수, 즉 계층 분류 질은 0.612로 나타났다.

구조적 0을 포함한 5집단은 아래 [그림 2]에 제시되어 있다. y축은 각 시점에서 직업을 결정했을 확률을 뜻하며, x축은 20세부터 29세까지의 10년의 시간을 나타낸다. 집단 1은 진로 결정성이 20대 전반에 걸쳐 꾸준히 높은 집단이며, 집단 2는 20대 초반에 진로 결정성을 고수준으로 유지하다 이후 감소하는 집단이다. 집단 3의 경우 진로 결정성이 낮은 상태에서 시작하여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높아지는 집단이며, 집단 4는 진로 결정성 수준이 매 순간 낮은 축에 속하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집단 5는 20대 전반에 걸쳐 진로 결정성이 0인 집단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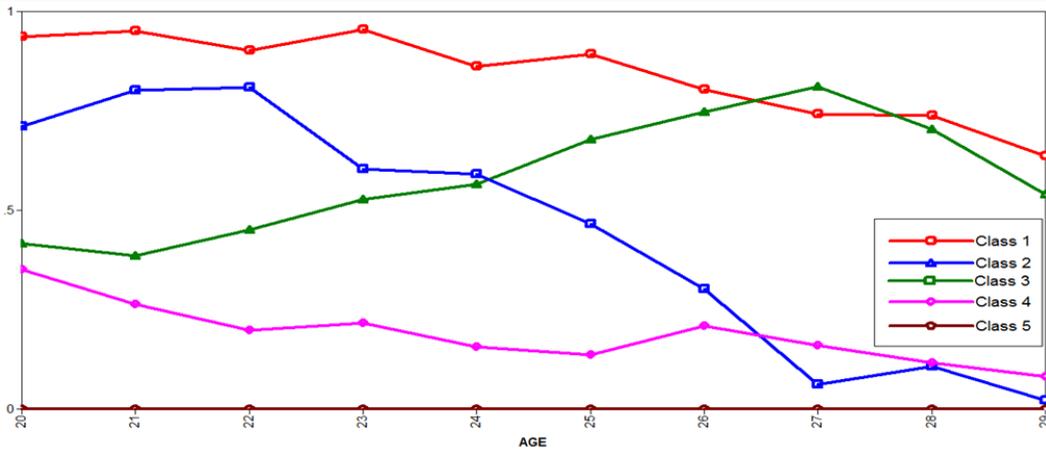
<표 2> 잠재계층 수 변화에 따른 BIC, LMR LRT, BLRT



<표 계속>

| 모형 | 집단 수 | BIC | entropy | LMR LRT | BLRT |
|----|---------|----------|---------|--------------|--------------|
| 1 | 2 | 9886.475 | 0.652 | 1027.147 *** | 1040.568 *** |
| 2 | 3 | 9811.030 | 0.625 | 150.017 *** | 151.977 *** |
| 3 | 4 | 9769.362 | 0.588 | 116.676 *** | 118.200 *** |
| 4 | 5 | 9808.798 | 0.587 | 36.618 | 37.096 *** |
| 5 | 5 (0집단) | 9773.303 | 0.612 | 94.725 *** | 95.963 *** |
| 6 | 6 (0집단) | 9813.172 | 0.606 | 36.191 | 36.663 |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2] 구조적 0 집단을 포함한 5 잠재계층(집단1, 20%, 집단2, 23%, 집단3, 19% 집단 4, 35%, 집단5,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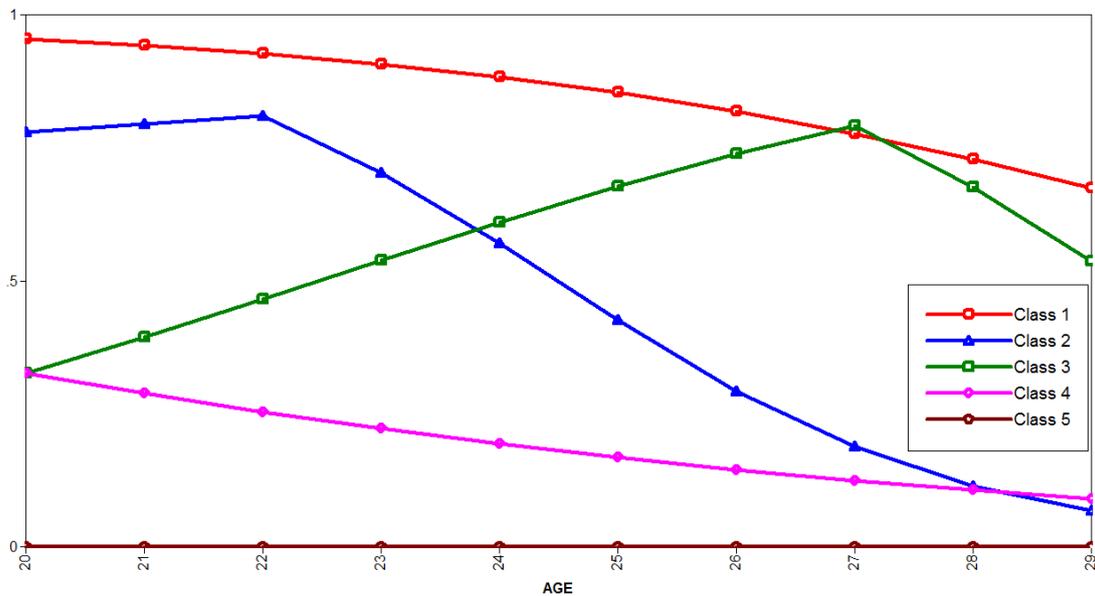
2. 청년기 진로 결정성 변화 형태

분석을 위한 두 번째 단계로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도출된 5집단을 잠재계층 성장모형(Latent Class Growth Model)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잠재계층 성장모형은 앞서 분석한 잠재계층분석과 달리 시간의 흐름에 따라 측정된 진로 결정성의 추세를 특정한 함수로 확인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잠재계층 분석에서 2집단과 3집단이 각각 3시점과 8시점에서 급격한 변화를 보였기 때문에 이 두 집단은 따로 분할함수 모형(Piecewise model)으로 적합시켰고, 나머지 계층에 대해서는 선형함수를 적용했다.

잠재계층분석과 동일하게 구조적 0 집단을 포함하여 5집단 모형을 분석한 결과, BIC 지수는 9646.84로 현저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LMR LRT, BLRT 역시 4집단과 구분이 유의미하게 나왔다(LMR LRT: $\Delta\chi^2 = 76.217^{***}$, BLRT: $\Delta\chi^2 = 78.408^{***}$). 반면, 6집단으로 늘렸을 경우, 잠재계층분석과 마찬가지로 BIC가 증가하였으며, 다른 분석도 유의하지 않게 나타났다(BIC= 9813.17, LMR LRT: $\Delta\chi^2 = 36.19$, BLRT: $\Delta\chi^2 = 36.66^{***}$). 따라서 5집단 구분을 진로 결정성 변화의 최종 모형이라고 판단하였다.

진로 결정성의 각 집단의 종단 추세 변화는 아래 [그림 3]과 같다. [그림 2]를 통해 집단 1을

진로 결정 고(高)집단, 집단 2를 진로결정 감소 집단, 집단 3을 진로결정 강화 집단, 집단 4를 진로 결정 저(低)집단, 마지막으로 집단 5를 진로 미결정 집단으로 명명했다. 집단 분류 비율은 집단 1, 19%, 집단 2, 18%, 집단 3, 23%, 집단 4, 36%, 구조적 0 집단인 집단 5이 3%로 나타났다.



[그림 3] 진로 결정 잠재 계층 성장 모형(집단1, 19%, 집단2, 18%, 집단3, 22%, 집단 4, 36%, 집단5, 3%)

3. 진로 결정성과 진로정보인지수준 변화 형태

앞서 분석한 진로 결정성 집단을 진로정보인지수준의 변화와 결합하여, 이원 성장 혼합 모형을 최종적으로 분석했다. 진로정보인지수준 변화의 경우 1집단으로 분석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초기에 증가하다 그 속도가 감소하는 형태로 나타났으며(초기치 = 6.676, 선형 기울기 = .355, 2차 함수 기울기 = -.021), 2차 함수에서 적합도가 가장 좋았다($\chi^2=63.819^*$, CFI = .964, TLI = .965, RMSEA = .021). 즉, 진로 결정성 여부는 분할함수 모형으로, 진로정보인지수준은 2차 함수로 적합하여 이원 혼합 성장 모형에 적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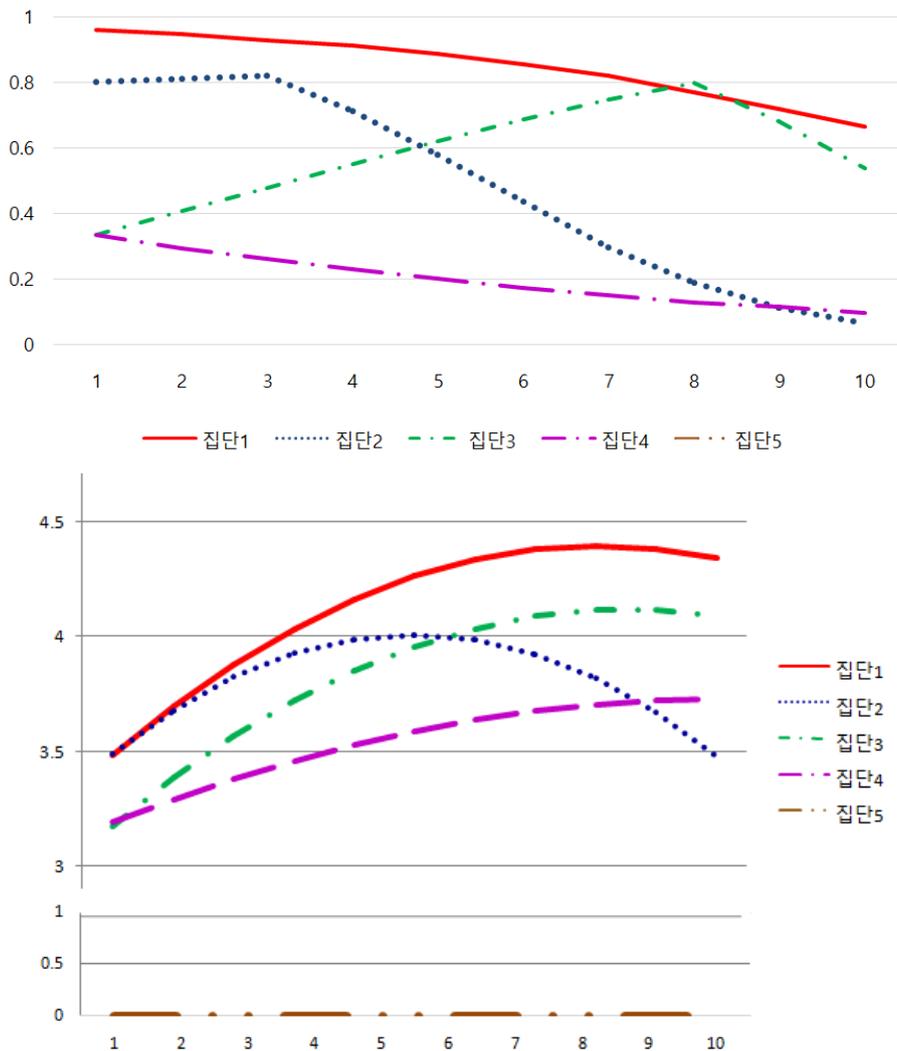
분석 결과, BIC는 16,979, LMR LRT, BLRT에서 4집단과 구분이 잘 되는 모형으로 나타났다. 6집단 모형과 비교했을 때, 6집단 모형의 BIC가 17,010로 증가했으며, LMR LRT의 χ^2 차이가 53.163로 유의하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5집단 모형을 진로 결정성과 진로정보인지수준을 혼합한 진로발달 변화의 최종 모형으로 선택했다. 집단의 전체적 변화 패턴과 변화 함수는 아래 [그림 4]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진로 결정력과 정보인지수준 청년기 변화 패턴의 성장함수 평균과 표준오차

| 성장함수 | 집단1 | | 집단2 | | 집단3 | | 집단4 | | 집단5 |
|------|-----------|-------|----------|-------|----------|-------|----------|-------|-----|
| | 평균 | 표준 오차 | 평균 | 표준 오차 | 평균 | 표준 오차 | 평균 | 표준 오차 | |
| IU | 0.696 | 0.56 | -1.07*** | 0.31 | -3.15*** | 0.32 | -3.17 | 0.00 | · |
| SU1 | -0.276*** | 0.08 | 0.05 | 0.23 | 0.29*** | 0.05 | -0.17*** | 0.03 | · |
| SU2 | · | · | -0.59*** | 0.09 | -0.60*** | 0.13 | · | · | · |
| IY | 3.48*** | 0.07 | 3.49*** | 0.08 | 3.15*** | 0.09 | 3.19*** | 0.07 | · |
| SY | 0.22*** | 0.03 | 0.21*** | 0.06 | 0.22*** | 0.04 | 0.10* | 0.06 | · |
| QU | -0.01*** | 0.00 | -0.02* | 0.01 | -0.01*** | 0.00 | -0.00 | 0.00 | · |

주1. IU = 진로결정 변화의 초기치; SU1 = 진로결정 변화의 기울기; SU2 = 진로결정 변화의 분할 함수; IY = 진로정보 인지수준 변화의 초기치; SY = 진로정보인지수준 변화의 선형 기울기; QY = 진로정보인지수준 변화의 2차 기울기
 주2. 집단5의 경우 매시점 진로결정성과 진로정보인지수준을 0으로 제약을 하여 순수한 0집단을 만들었기 때문에 추정 되지 않았다.

* p < .05 ** p < .01 *** p < .001



〔그림 4〕 진로 결정성과 진로 정보인지 수준의 변화 패턴

4. 진로 발달의 계층 특성

이원 성장 혼합 모형으로 도출된 5개의 진로발달의 잠재계층은 진로 결정력과 정보인지수준을 합쳐 해석이 되는데, 진로 결정 고수준 집단이면서 정보인지수준이 증가하는 집단, 진로 결정성 감소 집단이면서 정보력 변화 집단, 진로 결정 강화 집단이면서 정보인지수준 상승 집단, 진로 결정 저수준 집단이면서, 정보력 하위 집단, 마지막으로 미결정 집단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잠재계층의 경우 전체 18%의 비율을 차지하며, 전반적으로 매 시점에서 진로 결정성이 높고, 정보력 또한 증가하는 집단이다. 다음 집단은 17%로, 진로 결정성이 특정 시점, 즉 대학교 3~4학년부턴 급격하게 떨어지며, 그에 따라 진로정보인지수준도 점차 감소하는 집단이다. 이 시점에서 해당 집단은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갖게 되어 더 이상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진로 결정이 강화되고, 정보력 또한 상승하는 집단의 경우 전체 23%이며, 진로 결정성은 27세까지 꾸준히 높아지다가, 그 이후에 줄어드는 집단이다. 진로 결정 약화 집단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37%로 정보력 또한 가장 낮게 유지되는 집단이다. 마지막으로 진로를 20대 전반에 걸쳐 결정하지 못하는 집단은 3%로 나타났는데, 이들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집단으로 볼 수 있다.

5. 진로 발달 잠재계층과 노동시장 성과

도출된 진로 결정성과 진로정보인지수준의 집단이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기 위해 이원 성장 혼합 모형에 노동시장 성과 변수인 정규직 여부, 임금, 노동 환경 만족도, 직업 만족도, 임금 만족도, 직장 안정성의 변수를 넣어 확인해 보았다. 잠재계층이 결과변수에 미치는 영향은 Lanza가 제시한 모형에 기반한 접근법(Flexible model-based approach)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Lanza et al, 2013).

진로 결정성과 정보인지수준의 변화 궤도에 따른 집단이 노동 시장 성과에서 어떤 차이가 나타나는 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노동 시장 성과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평가되는 정규직 여부와 임금을 분석해 본 결과, 정규직의 여부의 경우 전체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지만($\chi^2 = 7.85, p > .091$), 임금의 경우 유의하게 나타났다($\chi^2 = 20.23, p < .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규직 여부는 감소 집단에서 가장 많은 정규직 비율이 나타났으며, 0 집단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감소집단과 0집단 간에 차이만 유의했다($\chi^2 = 6.422, p < .05$). 임금의 경우 직업 결정성이 꾸준히 높았던 집단이 평균 171만원으로 가장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진로 미결정 집단은 132만원으로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둘 간의 차이는 $\chi^2 = 12.453$ 으로 $p = .001$ 수준에서 유의했다.

다음으로 노동시장 성과의 한 부분인 직장 만족에 대한 정도는 직장 환경, 임금, 안정성, 직장 전반 만족으로 평가되는데, 모든 부분에서 집단 간 유의한 결과를 보였다($\chi^2 = 32.93$,

16.99, 18.62, 23.47, $p < .001$). 모든 영역에서 직업 결정성을 고수준으로 유지하는 집단이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이는 진로에 대한 고민을 꾸준히 이어오는 집단이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 임금 부분에서 높은 성과를 내며, 직업적 측면에서 만족감도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반대로 진로 미결정 집단은 전반적인 직장 만족을 포함한 모든 영역에서 가장 낮은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 즉 진로에 대한 고민이 수반되지 않은 취업 활동은 결과적으로 노동 시장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진로 결정 미결정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집단들의 노동시장 성과의 경우 임금, 직업 만족도 요소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진로 저수준 집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미결정 집단과 마찬가지로 진로에 대한 고민이 적은 집단일수록 낮은 노동시장 성과를 보인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진로 결정성이 20대 초기에 낮았다 높아지는 강화 집단의 경우 정규직 여부와 임금이 감소집단에 비해 낮게 나타났지만, 오히려 노동 환경, 직장 만족, 임금 만족, 직장 안정성에 대해서 더 높은 값을 타나냈다. 진로 결정성이 20대 중반부터 낮아지는 감소 집단은 임금과 정규직 여부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직업 만족도는 고수준과 증가 집단에 비해 높지 않았다. 이들 집단은 20대 초반에 원하는 진로를 결정하고 직업을 얻어 진로에 대한 의식이 오히려 감소하는 집단으로 여겨진다. 즉, 임금이 높고 정규직으로 채용이 되었지만, 더 이상 진로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 집단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다소 낮은 만족도를 보였다고 볼 수 있다.

〈표 4〉 잠재 변화 패턴에 따른 노동시장성과 차이 분석

| | 전체 χ^2 | 고수준(A) | 감소(B) | 증가(C) | 저수준(D) | 0집단(E) |
|---------|-------------|--------|-------|-------|--------|--------|
| 정규직 여부 | 7.85 | 0.79 | 0.83 | 0.67 | 0.79 | 0.68 |
| 임금 | 20.23 | 171 | 165 | 159 | 151 | 132 |
| 노동환경 만족 | 32.93 *** | 3.51 | 3.24 | 3.35 | 3.11 | 2.99 |
| 임금 만족 | 16.99 *** | 3.22 | 3.02 | 3.19 | 2.97 | 2.62 |
| 직장 만족 | 18.62 *** | 3.45 | 3.28 | 3.35 | 3.18 | 3.18 |
| 직장안정성 | 23.47 *** | 3.50 | 3.26 | 3.46 | 3.19 | 3.08 |

주. Lanza 방식으로 각 잠재 패턴 간 노동성과의 차이 검증을 한 것으로 각 노동시장성과 값들은 잠재 패턴의 평균을 뜻한다.

* $p < .05$ ** $p < .01$ *** $p < .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20대 청년들의 진로 결정력과 정보인지수준 변화 패턴을 확인하는 동시에 변화 패턴과 노동시장 성과의 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진로란 단순히 직장을 얻어 경제력을 갖는 행위를 넘어 개인의 성취를 이루며 고유성을 얻는 행위이다. 따라서 진로 탐색하고 깨닫게 되는 과정이 20대 전반에 걸쳐 어떤 유형이 존재하는 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기에 더해 진로 발달 변화와 패턴이 결과적으로 노동시장 성과와 어떤 관련성을 맺는 지를 파악하여, 향후 학생 혹은 청년들의 진로 발달 정책에 고려돼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연구결과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10년간 진로결정의 발달적 변화에 따른 잠재계층을 확인한 결과, 진로결정 여부에 따라 다섯가지 변화양상을 보이는 잠재계층이 확인되었다. 5개의 진로결정 잠재계층은 지속적으로 진로결정 상태를 유지하는 '진로결정 고(高)집단', 초기 진로를 결정한 상태에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감소하는 '진로결정 감소 집단', 처음에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지만 점점 갈수록 결정이 증가하는 '진로결정 강화 집단', 진로 결정 수준이 낮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진로 결정 저(低)집단', 그리고 계속해서 직업을 결정하지 못한 '진로 미결정 집단'이다. 집단 분류 비율은 각각 19%, 18%, 23%, 36%, 그리고 3%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진로정보인지수준의 변화는 진로결정에 따라 다섯 개의 잠재계층이 도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진로결정 고(高)집단'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정보인지수준이 증가하였다. 이는 미래에 대한 확고한 계획이 있을수록 진로정보를 많이 수집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진로결정 감소 집단'에서는 결정여부는 감소하면서, 정보인지수준은 역시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결정성이 대학교 졸업시기 즈음에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집단은 직업을 갖게 되어 더 이상 새로운 진로를 탐색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진로결정 강화 집단'과 '진로 결정 저(低)집단'의 경우, 두 집단 모두 전반적으로 진로정보인지가 상승하지만, 진로결정 강화 집단의 경우 더 높은 정보인지수준을 보이며, 진로 결정 저집단의 경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진로를 결정 하지 않은 집단일수록 진로정보인 지수준도 낮음을 알 수 있었다(이지영 외, 2005).

다음으로 도출된 진로발달 형태가 노동시장 성과에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알기 위해 이원 성장 혼합 모형에 노동시장 성과 변수인 정규직 여부, 임금, 직업 만족도(노동환경 만족도, 임금 만족도, 직장 만족도, 직장 안정성) 변수를 넣어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임금과 직업만족도에서 전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드러지는 결과로는 진로발달 수준이 높은 집단이 진로 미결정 집단에 비해 모든 부분에서 높은 노동시장 성과를 보인 것이다. 즉, 청년기 동안 지속적인 진로고민을 한 집단이 임금, 직장 만족도에서 높은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 진로발달이 청년기 초기에 고수준에 머물다 감소하는 집단은 임금 부분에서는 고수준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성과를 보였지만 직장 만족도 수준에 대해서는 진로발달이 꾸준히 상승하는 집단에 비해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진로발달 감소집단이 청년기 초기에 직장을 갖고 현실에 안주하여 나타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는데, 진로를 꾸준히 고민하고 발달시키는 집단이 자신의 직업에 있어 더 적극적이며 더 높은 만족감을 갖는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진로발달이 저수준에 머무는 집단은 진로 미결정 집단과 마찬가지로 가장 낮은 노동시장 성과를 보였는데, 진로 고민을 청년기에 치열하게 하지 못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노동시장에서 낮은 성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 직업선택의 전환 시기에 있는 청년들에게 대학 1학년부턴 지속적인 진로지도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꾸준

히 높은 진로 결정성과 정보인지수준을 보인 집단이 가장 높은 임금과 직업만족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1학년부터 체계적으로 진로발달을 돕는 프로그램의 필요성을 말해준다. 현재 대학교에서 진로지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스스로 삶의 진로를 결정하고 계획하는 능력을 길러주기보다는 대부분 취업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고학년 대상으로 단순 취업정보나 이벤트 중심의 서비스만이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단계별로 진로교육을 실시하여 저학년에는 자기이해, 직업세계 이해, 진로의사결정 등의 진로 준비를 전체적으로 설계하고, 고학년에는 취업에 필요한 스킬을 개발하여 종합적인 진로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면 대학에서 사회로 성공적으로 전환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진로탐색과 결정을 구체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직업교육훈련을 확대해야 한다. 연구결과, 진로결정성과 정보인지수준은 비례해서 나타났다. 즉, 진로결정성이 높은 집단이 정보인지수준도 높았고, 진로결정성이 낮은 집단은 정보인지수준도 낮았다. 최근 산학인턴십이나 일-학습 병행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러한 제도는 미래에 고려하고 있는 직업세계를 미리 경험함으로써 본인에게 필요한 진로정보를 얻도록 해준다. 또한 직업교육훈련 참여는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재휘, 김경근, 2015). 따라서 맹목적인 스펙 쌓기가 아닌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현장을 체험함으로써 원활한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진로결정 저수준 및 미결정 집단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진로발달 저수준에 속하는 학생들은 초기에 낮은 발달상태를 보였고 시간이 지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이는 진로미결정성이 시간에 의해 자연스럽게 해소되지 않는다는 Dysinger(1950)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에게 진로지도 및 상담현장에서 자기이해활동과 직업정보 탐색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즉, 진로 상담 혹은 교육을 수동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넘어 진로발달 수준이 낮은 청년들을 찾고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진로발달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진로발달 형태와 노동시장 성과와의 관계를 탐색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지닌다. 우선, 진로발달 잠재계층이 어떠한 원인으로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분석까지 확장시키지 못했다. 즉, 잠재계층을 설명할 수 있는 변수를 포함시켜 분석할 필요성이 있다. 또, 청년층의 변화를 '여자' 대학생으로 한정지었는데, 남성의 경우 군입대 등으로 결측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그 패턴을 예측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추후 연구에서는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의 자료도 함께 분석할 필요가 있다.

취업난에 허덕이면서 꿈을 잃고 헤매는 청년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진로의식은 매순간 바뀔 수 있지만, 진로의식이 낮은 청년들은 갈수록 많아지고, 자포자기하는 청년들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고용절벽'이라고까지 불리는 현 상황에서 단지 이상만을 꿈꾸는 것은 어쩌면 낭비적인 일일 수 있다. 하지만 업(業)으로 삼을 '진로'를 선택하는 것이 아닌, 꿈이 단순히 생계를 위한 '직장'을 갖는 것으로 가치를 잃고,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렸다. 이런 현실에서 청년들이 진로를 고민하고, 진로를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현 청년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일 것이다.

❖ 참고문헌 ❖

- 곽수란, 이기종(2014). 가정배경과 청년기 진로발달 특성이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7(3), 203~227.
- 권재기, 김진호(2011). 청년기 직업결정의 변화양상에 따른 진로특성 변화 및 예측: 대학 4년간의 진로고민·고등학교 3학년 때의 진로특성.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4(1), 49~74.
- 김봉환, 김계현(199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의 발달 및 이차원적 유형화.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9(1), 311~333.
- 김성남(2013). 특성화고졸 취업자의 진로발달 유형과 직장만족도의 관계. 직업교육연구, 32(3), 141~162.
- 김충기(1996). 진로교육에서의 진로정보활동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교육연구소 논문집, 20, 133~167.
- 노경란, 박용호, 허선주(2011). 대학 재학 중 취업 및 진로개발 서비스 참여 경험이 대졸자의 취업에 미치는 영향: 취업여부, 고용형태, 일자리 만족도를 중심으로. 교육학연구, 49(1), 63~92.
- 노법래 (2013). 후기청소년의 진로발달 궤적에 관한 종단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4(3), 171~193.
- 박동열, 김대영(2006). 대학생의 직업의식에 관한 실태. 직업교육연구, 25(2), 1~32.
- 박소영, 민병철(2008). 진로결정시기가 임금과 직업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아시아교육연구, 9(4), 245~270.
- 박수길, 이영희(2002). 한국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가족변인과 개인변인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4(1), 141~160.
- 박재민, 엄미정, 김윤영(2010). 전공-직업 일치도의 장기적 노동시장 성과에 관한 연구. 고용직업능력개발연구, 13(2), 1~20.
- 박현주, 김봉환(2006). 고등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진로결정수준 및 진로준비행동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8(2), 419~439.
- 심재휘, 김경근(2015). 대졸 청년층의 초기 노동시장 성과 영향요인 분석: 대학 재학기간을 중심으로. 한국교육학연구, 21(1), 113~138.
- 이자형(2015).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발달 변화 영향요인에 관한 종단적 분석: 진로계획성과 진로관심을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22(10), 289~316.
- 이재창, 박미진, 김진희(2007).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진로준비행동이 진로상담에 대한 기대감에 미치는 영향. 진로교육연구, 20(2), 111~127.
- 임은미, 박승민, 엄영숙(2009). 대학생의 진로미결정 수준과 전공 만족도, 전공 및 직장선택 기준의 차이. 청소년학연구, 16(10), 33~50.
- 장경문(2005). 대학생의 진로결정수준과 학업적 자기효능감이 대학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상담학연구, 6(1), 185~196.
- 채창균, 김태기(2009). 대졸 청년층의 취업 성과 결정 요인 분석. 직업교육연구, 28(2), 89~107.
- 황매향, 김봉환, 최인재, 허은영(2010). 한국 청소년의 연령에 따른 진로발달 특성의 변화추이 분석. 아시아교육연구, 11(4), 75~94.
- 황여정(2007). 일반계 고등학생의 진로결정 및 진로정보인지수준 영향요인. 교육사회학연구, 17(1), 131~158.

-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243, 277.
- Asparouhov, T., & Muthén, B.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 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 Brown, E. C., Catalano, R. F., Fleming, C. B., Haggerty, K. P., & Abbott, R. D. (2005). Adolescent substance use outcomes in the Raising Healthy Children project: a two-part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3(4), 699.
- Carlin, J. B., Wolfe, R., Brown, C. H., & Gelman, A. (2001). A case study on the choice, interpretation and checking of multilevel models for longitudinal binary outcomes. *Biostatistics*, 2(4), 397~416.
- Dysinger, W. S. (1950). Maturation and vocational guidance. *Occupations*.
- Ginzberg, E., Ginzberg, S. W., Axelrad, S. & Herma, J. L.(1951). Occupational choice: An approach to a general theory,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Kim, Y., & Muthén, B. O. (2009). Two-part factor mixture modeling: Application to an aggressive behavior measurement instrument.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6(4), 602~624.
- Lanza, S. T., Tan, X., & Bray, B. C. (2013). Latent class analysis with distal outcomes: A flexible model-based approach.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0(1), 1~26.
- Lo, Y., Mendell, N. R., & Rubin, D. B. (2001). Testing the number of components in a normal mixture. *Biometrika*, 88(3), 767~778.
- McLachlan, G., & Peel, D. (2004). Finite mixture models. John Wiley & Sons.
- Muthén, B. (2001). Two-part growth mixture modeling. Unpublished manuscript.
- Muthén, B. (2004). Latent variable analysis. The Sage handbook of quantitative methodology for the social scienc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s, 345~68.
- Muthén, B. (2008). Latent variable hybrids: Overview of old and new models. *Advances in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s*, 1, 1~24.
- Norris, W., Hatch, R. N., Engelkes, J. R., & Winborn, B. B. (1985). The career information service. Waveland PressInc.
- Nylund, K. L., Asparouhov, T., & Muthén, B. O.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14(4), 535~569.
- Olsen, M. K., & Schafer, J. L. (2001). A two-part random-effects model for semicontinuous longitudinal data.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96(454), 730~745.
- Osipow, S. H., Carney, C. G., & Barak, A. (1976). A scale of educational-vocational undecidedness: A typological approach.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9(2), 233~243.
- Sterba, S. K. (2013). Understanding linkages among mixture models. *Multivariate Behavioral Research*, 48(6), 775~815.
- Super, D. E. (1957). The psychology of careers. New York: Harper & Row.
- Super, D. E. (1990). A life-span, life-space approach to career development. In Brown S. D, Brooks, L. & Associates (Eds.), *Career choice and development: applying contemporary theories to practice*. San Francisco · Oxford: Jossey-Bass publishers.

Usinger, J. & Smith, M.(2010). Career development in the context of self-construction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Vocational Behavior*, 76, 580~591.

Vermunt, J. K. (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18(4), 450~469.

